

VENT

진행  
김정은 편집장

사진  
신경섭

자료제공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 프론트

설계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주)(워진복)

설계 담당  
김영세, 하신해, 김성진

위치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4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439m<sup>2</sup>

건축면적  
258.19m<sup>2</sup>

연면적  
1,452,23m<sup>2</sup>

규모  
지상 5층, 지하 2층

높이  
18.5m

주차  
13대

건폐율  
58.81%

용적률  
199.9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로이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경질우레탄보드, 석고보드

구조설계  
CNP 동양

사공  
다산건설엔지니어링(주)

기계·전기 설계  
유성 기술단

그래픽 디자인  
커브

파사드 엔지니어링  
프론트

설계기간  
2021. 3. ~ 12.

시공기간  
2022. 2. ~ 2023. 6.

공사비  
49억 9천만 원

VENT

Architect  
UIA (Urban Intensity Architects) (Wee Jinbok)

Design team  
Kim Youngse, Ha Sinhae, Kim Seongjin

Location  
14, Jandari-ro, Mapo-gu, Seoul, Korea

Programme  
neighbourhood living facility

Site area  
439m<sup>2</sup>

Building area  
258.19m<sup>2</sup>

Gross floor area  
1,452.23m<sup>2</sup>

Building scope  
B2, 5F

Height  
18.5m

Parking  
13

Building to land ratio  
58.81%

Floor area ratio  
199.99%

Structure  
RC

Exterior finishing  
Low-E double glass, exposed concrete

Interior finishing  
polyisocyanurate board, gypsum board

Structural engineer  
CNP DONGYANG

Construction  
DASAN ENG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  
Yousung Total Engineering Co., Ltd.

Graphic designer  
Kerb

Façade engineer  
FRONT Inc.

Design period  
Mar. – Dec. 2021

Construction period  
Feb. 2022 – June 2023

Construction budget  
4.99 billion KRW

VENT

진행  
김정은 편집장

사진  
신경섭

자료제공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 프론트

설계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주)(워진복)

설계 담당  
김영세, 하신해, 김성진

위치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4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439m<sup>2</sup>

건축면적  
258.19m<sup>2</sup>

연면적  
1,452,23m<sup>2</sup>

규모  
지상 5층, 지하 2층

높이  
18.5m

주차  
13대

건폐율  
58.81%

용적률  
199.9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로이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경질우레탄보드, 석고보드

구조설계  
CNP 동양

사공  
다산건설엔지니어링(주)

기계·전기 설계  
유성 기술단

그래픽 디자인  
커브

파사드 엔지니어링  
프론트

설계기간  
2021. 3. ~ 12.

시공기간  
2022. 2. ~ 2023. 6.

공사비  
49억 9천만 원

VENT

진행  
김정은 편집장

사진  
신경섭

자료제공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 프론트

설계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주)(워진복)

설계 담당  
김영세, 하신해, 김성진

위치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4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439m<sup>2</sup>

건축면적  
258.19m<sup>2</sup>

연면적  
1,452,23m<sup>2</sup>

규모  
지상 5층, 지하 2층

높이  
18.5m

주차  
13대

건폐율  
58.81%

용적률  
199.9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로이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경질우레탄보드, 석고보드

구조설계  
CNP 동양

사공  
다산건설엔지니어링(주)

기계·전기 설계  
유성 기술단

그래픽 디자인  
커브

파사드 엔지니어링  
프론트

설계기간  
2021. 3. ~ 12.

시공기간  
2022. 2. ~ 2023. 6.

공사비  
49억 9천만 원

edited by  
Kim Jeoungeun

photographed by  
Kyungsub Shin

materials provided by  
UIA, FRONT Inc.









## 파사드, 숨겨진 공간

간판은 상업 가로에 숨겨진 공간이다. 작금의 간판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일방향에서 양방향 간판으로, 다차원적 커뮤니케이션 플레인(plane)으로서 상업적 활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역동적 도시 가로를 위한 파사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 도시 맥락

벤트가 위치한 홍익대학교(이하 홍대) 인근은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지역 중 하나다. 삼거리 포차, KT&G 상상마당, 홍대 놀이터 등 유명한 장소성을 획득한 거점 주변으로 상업 건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홍대는 인근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광역적으로 대학 캠퍼스 존을 형성하고 있다. 강변북로 등 주변에서 접근이 쉬워 작은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연남동, 망원동, 광흥창역 등으로 확장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최근 홍대 캠퍼스 지하개발(홍대 혁신성장 캠퍼스)과 맞물려, 지역적 거점에서 더 확장된 광역적 캠퍼스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최근 이 건물 옆 노상 주차장이 선형 광장이 되어 보행자가 유입되고, 공연이나 축제 등의 행사가 많아지고 있다.

**여의도 업무 스트리트 vs. 홍대 클럽 스트리트**  
방탈출 카페, 노래방, 클럽, 룸카페, 보드카페 등 이미 창문이 필요 없는 상업 유형의 공간이 공급되고 있다. 또한 낮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는 특성은 여의도와는 반대 상황이다. 폐쇄적인 상업 용도 공간은 간판의 일방향적 전달을 확장해 건물의 유리화 벽면을 통해 그 상업적 메시지 전달을 확대하고 있다. 보행자나 소셜미디어의 유저들은 간판을 확인하고 목적 공간에 들어간다. 간판의 목적은 여기까지다. 간판은 파사드가 되었다.

## 간판과 소셜미디어

도시, 건축 계획은 간판의 크기, 디자인을 규제하려 했으나, 상가 임대자들은 이러한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엘리트적, 낭만적 규제의

결과가 아닐까? 간판을 넘어 파사드는 인터랙티브한 또 하나의 공간이자 다양한 소통이 일어나는 미디어가 될 것이고, 계속 변화할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 지도를 보며 어딘가를 찾아가지 않고, 큰 길가에 자리 잡은 가게를 따라서만 쇼핑하지도 않는다. 손안의 핸드폰은 장소의 물리적 장애를 극복했으며, 현실의 장소와 손안의 장소는 순식간에 전이된다. 홍대 클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장된 장소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건축은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 양식을 건축은 어떠한 유형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 퓨처프루핑

“알고리즘이 추천한 카페에 앉아 있다. 여기에 테이블은 CNC 기계로 만들어진

것이다. 암호화제로 커피값을 내고, 포스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톡톡 두드린다. 카페 밖 길가에서 AR게임을 하고 노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5년 전에는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시대의 아주 일상적인 상황이다.” (아담 그린필드, 『Radical Technologies: The Design of Everyday Life(급진적 기술: 일상생활의 디자인)』, 2017)

파사드는 발코니, 테라스, 계단이 사라진 오프라인 메시지 보드이며 상호 소통의 온라인 소셜미디어다. 간판이 만들어낸 스트리트 스케이프를 보여주는 홍대 클럽 스트리트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건물은 도시 가로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 개 층을 임대할 수도 있고,

다수의 층을 혹은 전체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 상황을 건물 임업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메시지를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간판이 아니라 보행자, 고객과 상호 소통하는 파사드가 되기 위한 건축적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 건축계획과 파사드 시스템

임차인들에게 좋은 공간 활용성을 위해 내부 공간은 포스트텐션 구조를 통해 기둥과 보가 없는 매끈한 공간을 만들었다. 무주 공간과 더불어 야외 테라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했다. 돌출되고 후퇴된 매스 구성과 가로변에 가까이 가려는 간판의 욕망은 서로 상충된다. 이 건물의 아연도장 파이프 파사드 시스템은 가로변에 통일된 하나의 수직 플레인을 형성한다. 하나의 수직면은 다양한 간판 디자인과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옥상에는 다양한 이벤트 베너, 별론 등의 축제장치가 트리스에 설치되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라이팅 디자인을 통합해 축제적 공간을 연출했다. 직경 35mm 아연 도장된 파이프를 통해 난간 시스템과 건물 외부에 사이니지 레이어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일방향적으로 보는 간판이 아니라, 내부 건물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간판의 양방향성, 투명성을 확보해 도시 가로와 건축 공간을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간판, 사이니지를 확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유롭게 수용하면서 내부 공간과 차단되지 않는 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공간 브랜딩

젊은이들의 거리이면서 건축적으로는 메시지 표출구의 의미로 ‘벤트(VENT)’라고 이름 지었다.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싱에 라인 라이팅으로 디자인해 상부 트리스 코너에 설치했다. 옥방, 감정을 분출한다는 의미의 벤트가 홍대의 또 하나의 표현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 THE FAÇADE AS A HIDDEN SPACE

Signage often occupies concealed spaces within commercial streets. To bring about a change to the current banner system, a proposal for a façade system that aligns with the increasing dynamism of our urban streets that can flexibly adapt to commercial use has been put forward. This transition involves shifting from one-way to two-way signage, ultimately serving as a multi-dimensional communication plane.

## Urban Context

The area near Hongik University (hereinafter Hongdae), where VENT is located, is one of Seoul’s most popular neighbourhoods among young people. It boasts renowned establishments such as Samgeori Pocha, KT&G Sangsangmadang, Hongdae Playground, and more, making it a central hub for commercial buildings. Hongdae, in conjunction with the nearby Yonsei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and Sogang University, collectively forms a large university campus zone. Despite its compact size, this area exerts its influence across surrounding neighbourhoods like Yeonnam-dong, Mangwon-dong, and Gwangheungchang Station, thanks to its accessibility from the Gangbyeon Expressway and other routes.

In tandem with the ongoing underground development project at Hongik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Innovation Growth Campus), this area is poised to evolve into a broader urban campus city from its current status as a local district. More recently, the outdoor parking space adjacent to this building has been transformed into a linear square, attracting increased pedestrian traffic and hosting various events, performances, and festivals.

## Yeouido Business Street vs.

## Hongdae Club Street

Various commercial establishments, such as escape rooms, karaoke bars, clubs, room cafés, and board game cafés, take precedence here, and, notably, they do not require windows. Unlike Yeouido, where businesses tend to operate less during the day, the situation in Hongdae club street is quite the opposite. Enclosed commercial spaces are expanding their commercial messages through windows and walls by extending the one-way delivery of banner messages. Pedestrians and social media users register these signs and enter at the invitation of the destination. The purpose of the signage ends here, as they have transformed into the features of façades.

## Signage and Social Media

City and architectural planning attempt to regulate the size and design of signage, but property owners and businesses do not always adhere to these plans. Perhaps these regulations are ineffective due to their elitist and idealistic nature? Beyond signage, façades now serve as interactive spaces and media platforms in and upon which diverse forms of communication take place and will continue to evolve. People no longer rely on physical maps for navigation, and shopping no longer involves browsing the windows of a high street. Mobile phones have transcended the physical limitations of a space, seamlessly bridging the gap between a physical location and the digital realm. Hongdae clubs are establishing an extended sense of place through their use of social media. In the midst of these advancements, what new architectural propositions can be offered and how can architecture flexibly adapt to an evolving style?

## Futureproofing

‘You are sitting at a café recommended to you by an algorithm, at a table that was cut on a CNC milling machine; you pay for your coffee with cryptocurrency, which you do by tapping your smartphone against the register; the voices of children playing an AR game filter in from the street. And while not a single aspect of this situation would have been possible even five years ago, none of it seems particularly remarkable to you. This is simply the shape of the normal in our time.’ (Adam Greenfield, *Radical Technologies: The Design of Everyday Life*, 2017)

A façade serves as an offline message board in the absence of balconies, terraces, and stairs, while also functioning as an interactive online social media platform. How will the future of Hongdae club street, shaped by its signage, continue to evolve? In situations in which building’s tenants change frequently, how can they adapt to this quality of the urban environment? How can the building’s exterior design accommodate various leasing scenarios, such as leasing a single floor, multiple floors, or the entire building? What architectural ideas can transform the façade into an interactive medium for communication with pedestrians and customers, moving beyond the one-way mode of delivery common to signage?

## Architectural Planning and Façade System

To optimise the use of space for tenants, the interior space has been designed with a smooth, column-free layout using a post-tension structure. Alongside these indoor spaces, the outdoor terrace areas have been actively incorporated. The desires to project and suspend massing configu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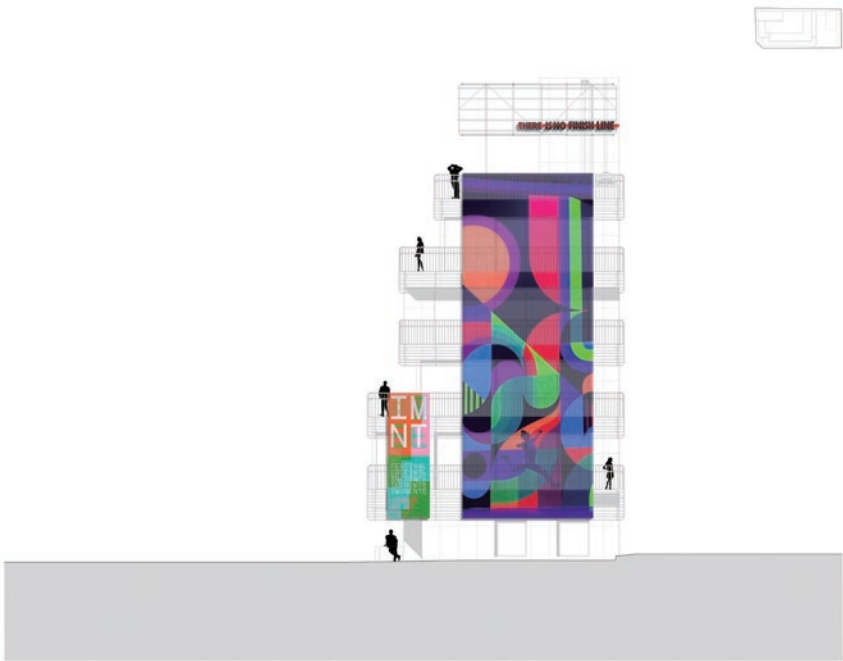
of the building, as well as the desire to place signage close to the street, are sometimes in conflict. The zinc-coated pipe façade system of this building forms a unified vertical plane along the street. One vertical plane can accommodate various banner designs and tenant requirements. On the rooftop, festival elements like various events signage and festoon lights are integrated with lighting design, creating a festive atmosphere. The integration of a 35mm diameter zinc-coated pipe railing system and layer of signage on the building’s exterior has been achieved. This ensures not only the one-way visibility of the signage from the outside but also a bidirectionality and transparency of signage that can be experienced from within the building. This provides a continuous experience between both the urban street and the architectural space. Instead of standardising the signage, efforts were made to accommodate it as freely as possible while ensuring spatial continuity without blocking the interior spaces.

## Spatial Bra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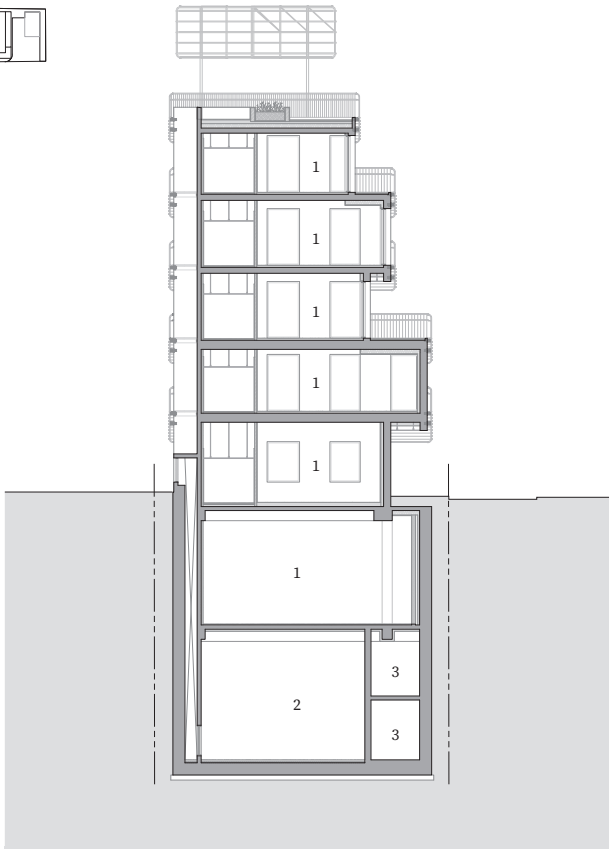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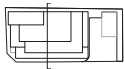
We named it VENT to signify its role as an outlet for messages, both as a young and vibrant feature and as architecturally meaningful. It is designed with line lighting on stainless casing and installed on the upper truss corners. We hope that VENT, signifying the release of certain desires and emotions, will become another expressive venue located close to Hong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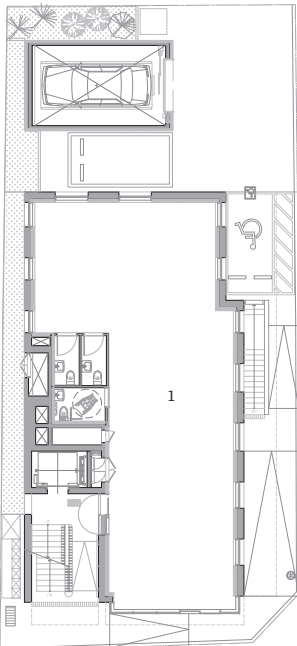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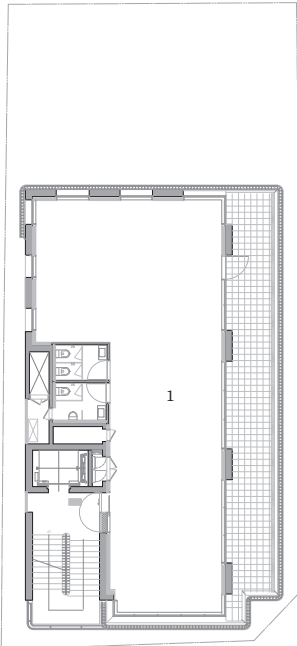
Collage elevation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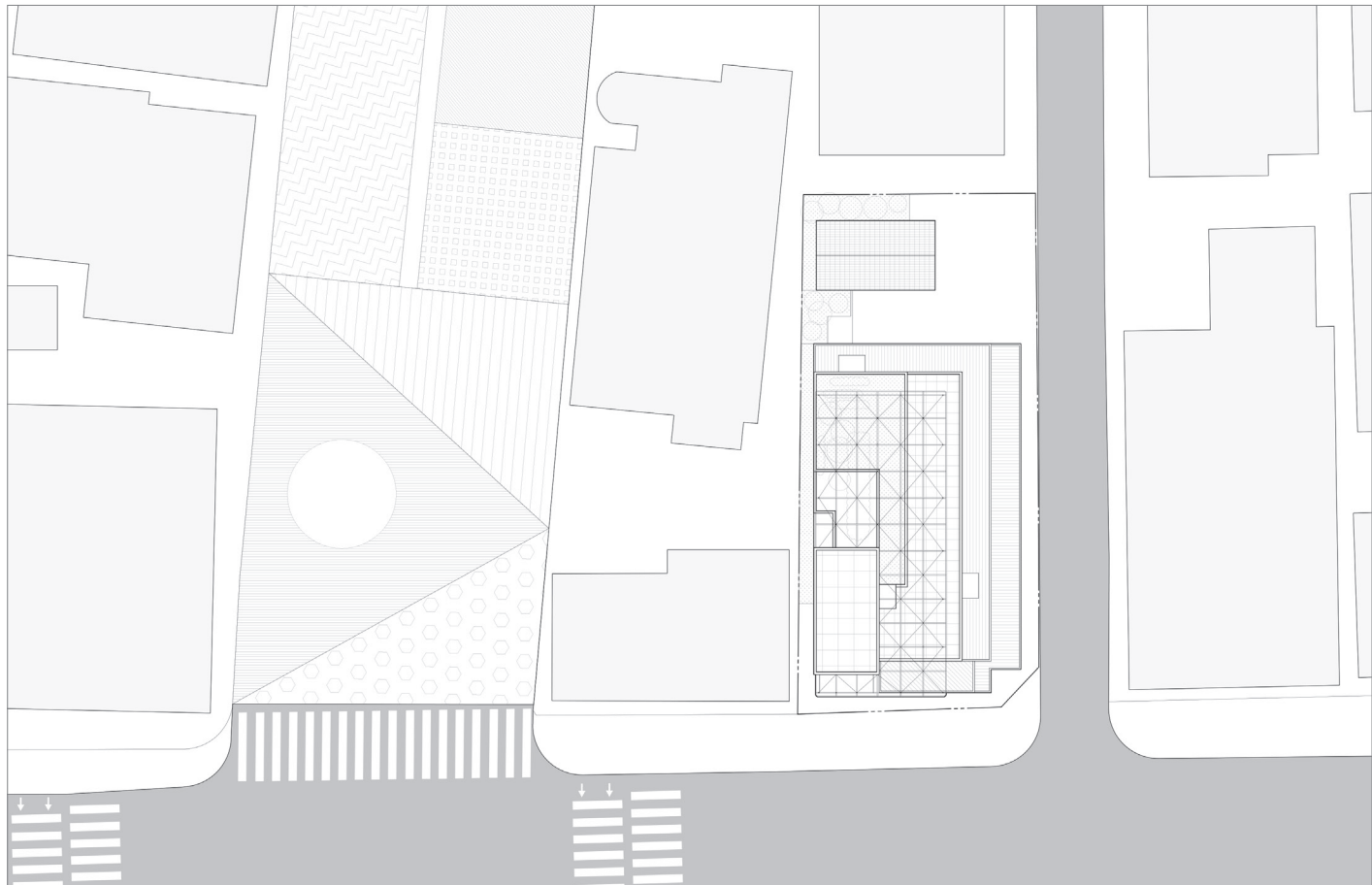
1F plan



3F plan

- 1. neighbourhood living facility
- 2. mechanical room
- 3. t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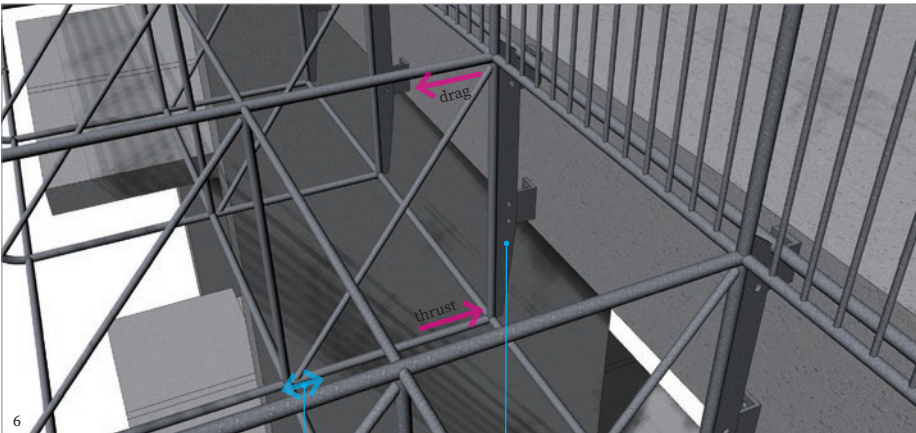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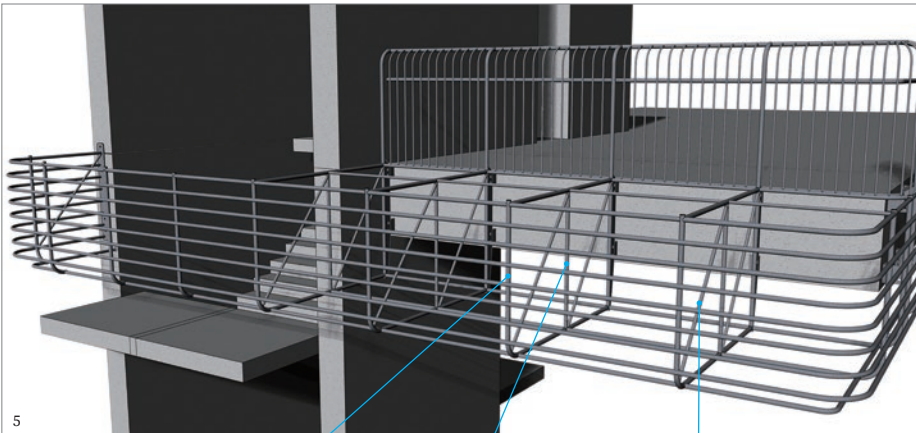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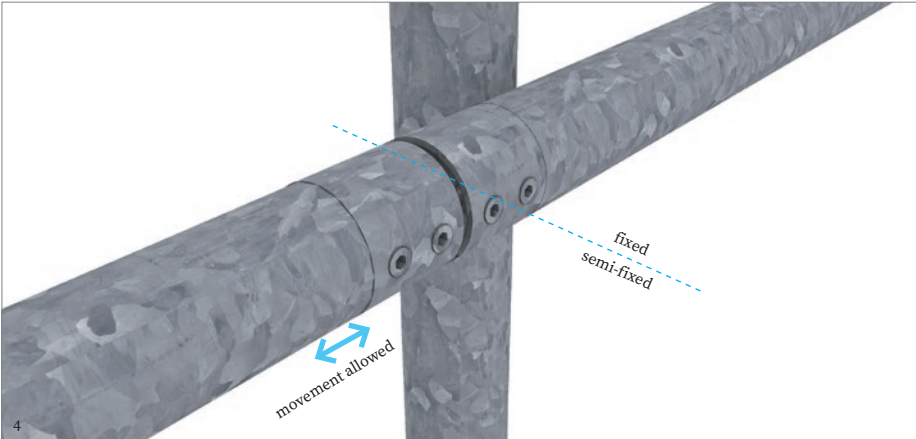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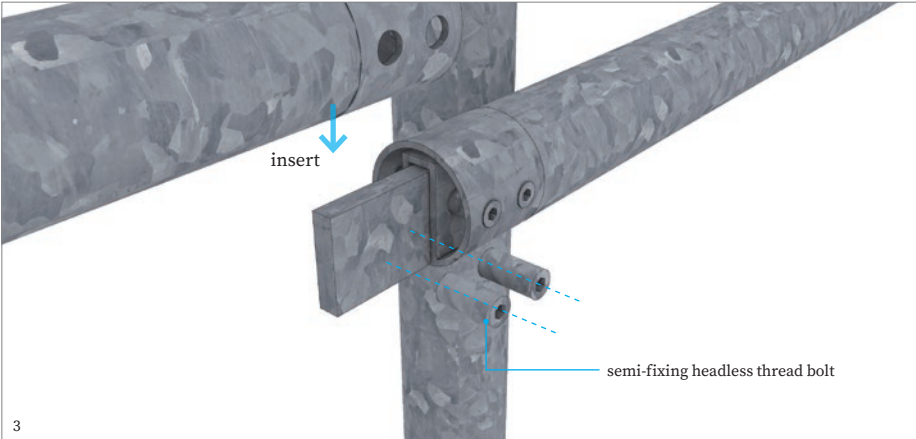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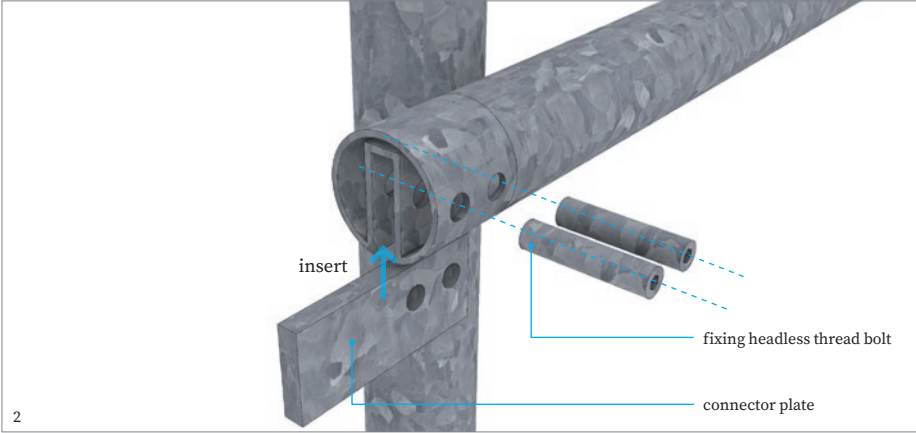
0 1 3 5m



Site plan

0 1 3 5m





canti. top & bot.  
ø33.5 steel pipe  
(hot dip galvanized)

canti. ver.  
ø33.5 steel pipe  
(hot dip galvanized)

bracing  
ø26.7 steel pipe  
(hot dip galvanized)

drag

thrust

offset for easy fabrication

thrust resisting bracket

1 - 4. Detail of typical H member  
5 - 6. Detail of cantilever



위진복은 한국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실무를 한 후, 2000년부터 10여 년간 런던에서 AA 스쿨 졸업 후 마이클 홉킨스와 리처드 로저스 사무실 등에서 일했다. 2009년부터 서울에서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프로젝트마다 요구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건축 작업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테헤란로에 구조역학을 구현한 업무시설인 스트레스드 타워, 기하학적 완결성을 보여준 광주 유니비시아드 수영장, 버려진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창업 인큐베이터로 브랜딩한 고려대학교 파이빌 99, 홍익대학교 인근에 간판을 새롭게 조직하는 상업 건물 벤트가 있다. 최근 공기 충전식 멤브레인으로 새롭게 엔지니어링한 신흥시장 아케이드 클라우드로 건축가협회상과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Wee Jinbok obtained an architecture degree in Korea. He worked in the practices of Michael Hopkins and Richard Rogers after graduating from the AA School in London, beginning his career in 2000. Since 2009, he has directed UIA in Seoul, a term spanning 14 years, focusing on diverse architectural projects that prioritised innovative ideas rather than strictly adhering to a particular style. Notable works include the Stressed Tower in Teheran-ro, showcasing structural dynamics; the geometrically complete Gwangju Universiade Swimming Pool; the Pi-Ville 99 at Korea University, repurposing discarded containers into start-up incubators; VENT in the area near Hongik University, reorganising commercial building signage; and the recent Cloud, an air-inflated membrane structure transforming arcade of Sinheung Market, Seoul. His works have earned awards such as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Award and the Prime Minister's Award for Public Culture in Korea.